도심 속 퍼레이드·불꽃놀이···"꿈 같은 시간"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행진의 날 I'

금남로 3가-1가 퍼포먼스 등 다채 롯데월드팀 등장에 일제히 환호성 폐막식서 드론쇼·내년 주제 공개도

"놀이공원처럼 변한 광주 도심에서 아이들과 함께 꿈 같은 시간을 보냈네요."

지난 18일 오후 6시께 광주 충장로 일대는 제2 2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나흘째를 맞아 '기획 초청 퍼레이드' 행렬을 기다리는 이들로 북적

'행진의 날 I '인 이날의 메인 프로그램이기 도 한 퍼레이드 행렬에는 일찍이 롯데월드팀이 참여할 것으로 예고돼 기대감을 모았는데, 체험 부스에서 직접 만든 무도회 가면을 쓴 아이들은 야광봉을 흔들며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들뜬 마음을 드러냈다.

이윽고 오후 7시께 퍼레이드의 시작을 알리 는 음악이 금남로 일대에 울려 퍼지자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금남로 3가에서부터 1가까지 행진하는 행렬 의 최선두는 어린이 12명 등이 탄 카퍼레이드팀 '동화마을 아이들'이었다.

방문객들과 인사를 나누던 아이들 뒤로 선 충 장축제 마스코트와 ET 청소년 야구단, 충장취 타대 등의 팀들은 각양각색의 퍼포먼스를 펼치 며 금남로의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화룡점정을 찍은 건 오후 8시께부터 모습을 보인 롯데월드 퍼레이드팀이었다.

트럼펫을 불며 등장한 롯데월드 마칭밴드가

칼군무를 선보인데 이어 마스코트 '로티'와 '로 리'가 나타나자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방 문객들은 이들에게서 전해지는 열정적인 에너 지와 이날만 경험할 수 있다는 특별함에 절로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행렬의 마지막까지 금남로 1가에 도착하자 5. 18민주광장 일원에선 피날레를 장식할 '나이트 불꽃놀이'가 진행됐다.

가을밤 하늘이 형형색색의 빛으로 수놓아지 자 "너무 예쁘다", "꿈같다" 등의 반응이 이어 졌다.

불꽃놀이와 함께 마지막을 장식한 포토타임 까지 끝나자 시민들은 아쉬워하면서도 만족스 러움을 표했다.

가족과 함께 퍼레이드를 본 한준수(40대)씨는 "아이가 어려 아직 장거리 여행을 못하고 있는 데, 일상 속 공간에서 함께 뛰어놀며 특별한 추억 을 만든 것 같아 너무 좋았다"며 즐거워했다.

지난해에도 충장축제에 왔다는 조가영(20대 ·여)씨는 "올해는 먹거리와 볼거리가 더 풍성 한 것 같고 함께 온 친구들 모두 재미있는 시간 을 보내고 있다"며 "충장축제가 광주를 넘어 전 국에서도 손꼽히는 축제로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다만, 퍼레이드 마지막 무렵부터 불꽃놀이가 끝날 때까지 약 30분간 5·18 민주광장 일대가 예

고 없이 통제되면서 충장로로 가거나 그쪽에서 오려던 시민들은 해제를 기다리거나 지하도를 통해 우회해야만 했다.

또 이로 인해 뒤늦게라도 불꽃놀이를 보러 온 방문객들은 되려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도 연출 돼 볼멘소리가 잇따랐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예상보다 인파가 몰리면서 현장 안전 요원들의 판단에 이뤄진 조 치"라며 양해를 구했다.

한편 충장축제 마지막 날인 19일 오후 9시께 부터 진행된 폐막식 성격의 '파이어 드론쇼'에 선 다음 해 충장축제 주제인 '추억의 노래'가 공 개됐다. /서형우·윤찬웅 수습기자



/김애리기자

●바다 날씨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앞바다 1.0 - 3.51.0 - 3.5서해 먼바다(북) 2.0 - 3.52.0-4.0 ____ 먼바다(남) 2.0 - 4.02.0 - 4.00.5 - 1.50.5 - 1.5먼바다(동) 1.0 - 3.01.0 - 3.5먼바다(서) 1.5-3.5 1.5-3.5

禁해뜸 06:43 해짐 17:52) 달뜸 05:20 달짐 17:03

여수 구름조금 13/20 함평 구름조금

나주 구름조금 7/18 순천 구름조금

완도 구름많음 10/20 영광 구름조금

해남 구름조금 9/19 고흥 구름조금

광양 구름조금 12/20 담양 구름조금

7/16

대전

5/16

광주

8/18

여수

13/20

8/18 장성 구름조금

9/21 진도 구름조금

9/19 흑산도 구름조금

강릉

11/13

부산

14/21

대구

9/18

보성 비온뒤갬

11/18

14/15

●광주 · 전남 날씨

구례 구름조금

●전국 날씨

인천 서울

5/15

7/17

제주

15/19

4/14

목포

10/18

흑산도

13/16

목포 구름조금 10/18

●물때

만조 간조
 01:20
 06:36
 04
 08:25
 02:02
 4
 09:05
 03:09

 13:42
 18:55
 04
 20:29
 14:21
 4
 09:05
 03:09

 21:07
 15:26

●생활정보지수



●주간 날씨

21일(화)	22일(수)	23일(목)
* \$\tag{9/17}	* (7/20)	* (10/21)
맑음	맑음	맑음
24일(금)	25일(토)	26일(일)
(10/21)	(11/21)	* (12/19)
구름조금	구름조금	맑음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제22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나흘째인 지난 18일 오후 동구 5·18민주광장 앞에서 롯데월드 퍼레이드팀이 불꽃쇼와 함께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道교육청 "취학아동 관리체계 점검 강화"

김재철 도의원 '소재 미확인' 지적 주민등록·학적 연계 정확성 제고 지원청 전담기구 중심 현황점검도

전남도교육청이 취학아동 관리 체계 점검을 강화한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이 제기한 도내 취 학 아동 소재 미확인과 관련, 취학 단계별 현장 대응을 체계화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계획이다.

앞서 지난 15일 김재철 도의원은 제394회 임 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3 월 말 기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도내 초 등학교에서 확인이 안되는 아동이 1천391명"이 라며 전남도 ·전남도교육청의 원인 파악과 아동 안전 확인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이 도내 소재 미확인 인원수 1천391 명에 대해 재확인한 결과 주민등록상 도내에 주 소를 둔 7-12세 아동은 총 7만8천625명이며, 이 중 재학 중인 학생은 7만6천342명, 취학 후 유예 등 학적 변동 인원을 포함하면 7만8천600명으로 집계됐다.

25명의 차이는 광주·전남 공동학구제에 따라

광주에 재학 중인 학생과 타시도에서 전입한 아 동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일부 수치 차이가 발생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주기적으로 학적 변동 및 출결 상황을 점검해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하 고 있으며, 취학 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와 교육지원청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통해 월 1회 이상 소재와 안전을 확 인해 취학 독려를 실시하고 있다.

협력해 취학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조 치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주민등록 정보와 학적 정보를 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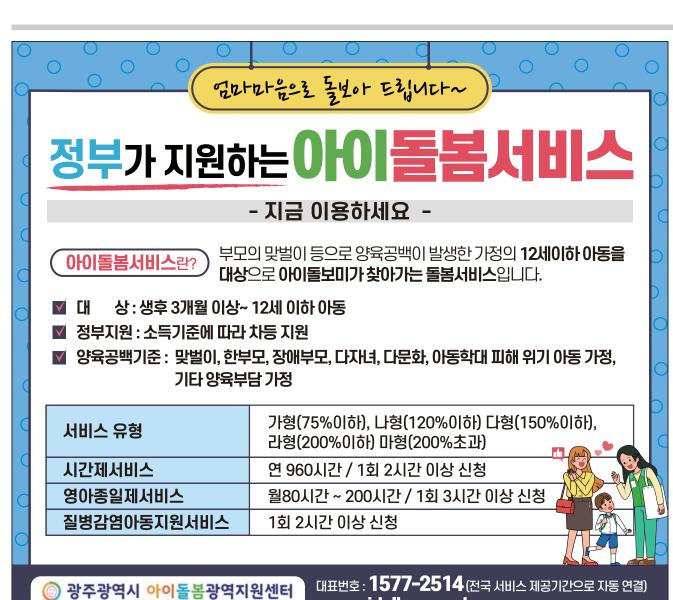
+

밀히 연계하고 교육지원청·학교·지자체 간 협 력체계를 강화해 취학아동 관리의 정확성을 높 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 취학관리전담기구를 중심으로 미취학 아동과 학적변동 학생의 현황 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취학 이후 학적 변동이 발생한 학생의 소재도 신속히 확인하도록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또 취학단계별 관리와 현장 대응을 체계화하 고 취학관리 담당자 연수 확대·매뉴얼 정비·정 기 점검 절차 강화를 통해 보다 촘촘하고 실효 성 있는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모든 아동의 소재와 안 소재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경찰 등 관계기관과 전을 꼼꼼히 확인해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실현 하고 특히 전남도와 협력해 취학아동관리가 철 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박선옥기자



홈페이지: idolbom.go.kr

